

성경 상에 인쇄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바로 욥이다. 구세주 하나님의 상징적 인물이 모세라면 인쇄의 표상(表象)은 욥이다. 욥은 당대의 가장 의로운 사람이었다. 하나님이 욥의 의로움을 칭찬하자, 마귀가 하나님에게 와서 말하기를 "욥에게 내리신 축복을 끊어버리면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성경 상에는 마귀가 마치 하나님의 수하인 것처럼 그려 놓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과 마귀가 욥을 사이에 두고 벌이는 싸움이다.

어떠한 지경에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은 욥

욥기는 뛰어난 문학 작품이다. 고틀의 파우스트도 욥기를 모태로 썼다고 한다. 욥은 당대의 가장 부자였고 아들이 일곱, 딸이 셋이었다. 그러나 하룻밤 사이에 이방인이 몰려와서 모든 재산을 탈취해 가버리고 태풍이 불어와 집이 무너져서 자식들을 다 잃었다. 그렇지만 욥은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거두어가시니 하나님을 찬양하나이다."라고 하며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

다음에는 온 몸에 악창이 나서 온 몸에 고름과 구더기가 가득했다. 그 아내가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독설을 퍼부었다. 그러나 욥은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니 재앙도 받는다."고 하며 입술로도 하나님을 원망치 않았다. 다음으로 세 친구가 찾아왔다. 세 친구는 욥의 형태가 너무나 기가 막혀 7일 동안 아무 말도 못하다가 8일 제부터 마치 검사가 죄인을 심문하듯 욥을 물어간다. 친구들이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 인내의 표상



벌을 받는 것."이라고 욥을 나무라자, 욥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자신은 하나님께 죄를 범하지 않았다고 한다. 악행을 행한 사람이 나처럼 벌 받지 않는 사람이 많다고 반박한다. 그러한 고통 속에서 욥은 "사람이 죽으면 소멸되나니 그 기운이 끊어진 즉 그가 어디 있느냐? 사람이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니까?"라는 유명한 말을 남긴다. 그리고 너무나 괴로운 나머지 죽기를 원했다. 고통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은 죽는 것뿐이라고 생각했다.

2차 친구들과의 토론이 시작되고 친구들은 욥에게 "네가 부자가 된 것은 많

은 사람들의 재물을 약탈하고 강제로 빼앗고 가난한 사람들을 함부로 부리지 않았느냐?"라고 꾸짖는다. 그러자 욥은 "내가 가난한 자들을 도왔기 때문에 그들로부터 존경을 받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설상가상(雪上加霜)으로 욥의 하인들까지 욥의 흉한 꼴을 보고는 오라고 해도 다 도망가고 모든 사람들이 욥을 멀리했다. 그러자 욥은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고 자신이 왜 이 같은 고통을 당하는지에 대하여 알려주지 않는 것이 원망스러웠다. 그러자 하나님이 나타나 "네가 나와 경쟁하려 하느냐?" 하시며

욕을 꾸짖었다. 그러자 욥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내가 지금까지는 귀로만 하나님을 들었사온즉 지금은 눈으로 하나님을 뵈옵니다."라며 하나님께 경배하였다.

하나님은 친구들을 꾸짖고 재물을 사다가 욥을 위하여 제사를 지내면 욥에게 내리신 고통을 거두고 다 용서하겠다고 하신다. 이에 친구들이 재물을 사다가 제사를 지내자 욥의 병이 나았고 다시 자식들을 낳고 재산도 두 배가 되었으며 140세까지 장수했다고 한다.

끝까지 참고 견디자

몰아치는 고통의 경지에서도 추호(秋毫)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자신에게 닥친 고난을 인쇄로써 견뎌낸 욥의 이야기다. 인쇄심이 강하고 집념이 강한 사람은 설령 앞에 걸렸다고 하더라도 "나는 결코 이따위 병으로 죽지 않는다."는 강한 정신력으로 기어이 병을 이겨낸다. 미국 사람들은 생명은 하나님이 주관하는 것이니 알 수 없는 일이라고 하며 설령 앞에 걸렸다고 해도 직장생활을 그대로 계속한다고 한다. 그러나 한국 사람들은 앞에 걸렸다고 하면 바로 직장을 그만두고 죽을 준비를 한다고 한다.

인내는 나를 버림과 같다. 나의 입장과 처지를 의식하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살아갈 생각만을 하는 것이다. 욥의 인쇄를 본받아 병마(病魔)든 고난(苦難)이든 끝까지 참고 견디며 포기하지 말자. 진인사대천명(盡人事待天命)이요, 인명(人命)은 재천(在天)이라고 했다.\*



이 사진 속에 있는 빛은 무엇입니까?  
What is the light in this photo?  
この写真中にある光は何ですか?

그것은 이슬성신입니다  
It's the holy Dew Spirit.  
それはつゆです.

승리지는 한량없는 이슬성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The Victor has a world of holy Dew Spirit.  
勝利者は無限のつゆをお持ちになっています.

그래서 승리지는 온 몸으로부터 이슬성신을 발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So He can radiate holy Dew Spirit from His body.  
それで勝利者は全身からつゆを発散できるのです.

당신도 승리제단에 가서 예배를 보면 이슬성신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You can take holy Dew Spirit photos if you attend the worship service in Victory Altar.  
あなたも勝利祭壇に行つて礼拝を行えばつゆの写真を撮ることが出来ます.

이슬성신은 온 인류를 구원하는 메시아의 상징입니다.  
The holy Dew Spirit is the symbol of Messiah who saves all mankind.  
つゆは全人類を救うメシアの証しです.

**당신을 영생의 세계로 안내하는 승리신문**  
성금계좌 : 우체국 103747 - 02 - 134421 예금주 : 이승우  
독자님들의 정성어린 성금이 영생의 세계를 앞당깁니다  
전국 각지에서 성금을 보내주신 분께 감사드립니다

## 속담 속의 영생학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는 속담은 자기가 미워하는 사람일수록 잘 해주어 인심을 얻어, 그로부터의 후환이 없도록 슬책 상 후하게 대해야 한다는 말이다. 이 속담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정작 이렇게 실천하는 사람은 드물다.

이 속담 속에는 승리제단의 이진자 조희성님께서 외치던 '누구든지 내 몸처럼 여겨라'라는 자유율법의 깊은 가르침이 들어있다. 미운데 어떻게 떡을 줄 수 있는가? 떡 대신 퐁을 준다면 속이 시원할 텐데 말이다.

먼저 미운 놈에게 떡을 주려면 그 미운 놈을 나라고 생각해야 한다. 그러면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아니 어떻게 남을 나처럼 생각할 수 있느냐?" 그 해답은 인류의 비밀! 인간의 진짜 실체를 알면 아주 간단하다.

원래 사람은 모두 하나님이었고 한 몸이었다. 하지만 마귀 영이 들어와 주체 영이 마귀가 되어 마귀에게 지배를 받고 끌려 다니는 존재가 되었다. 그리하여 생각의 그릇이 회생의 하나님에서 '나'만 아는 좁은 존재가 되었다. 마귀가 주관하면서 인간을 '나'와 '너'로 분열시키고 서로를 다른 존재로 생각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나는 부모의 피로써 만들어졌으

며, 부모는 조부모님의 피로 만들어졌다. 이와 같이 계속해서 올라가면 인류는 모두 한 조상에서 갈라나온 한 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치 한 뿌리에서 수많은 가지와 나뭇잎으로 나누어진 것처럼 인류는 한 나무요 한 몸이다. 따라서 미운 놈도 나요 못생긴 놈도 나다.

그렇다면 왜 우리 인류는 내 몸인데도 남의 몸처럼 여기는 것일까? 바로 '나'라는 의식의 마귀 영이 들어와 분별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을 품게 하는 것이다. 우리의 몸속에는 두 가지 신(하나님 신, 마귀 신)이 존재한다. 따라서 하나님이 되고 마귀가 되는 것은 자신이 마음먹기 나름이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이 되고, 마귀의 마음을 먹으면 마귀가 되는 것이다. 자! 결정하시라! 인류의 진짜 조상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미운 놈 떡 하나 주는 것을 넘어서서 '누구든지 내 몸처럼' 여길 것인가? '나'라는 의식으로 나를 분열시켜 '나'만 아는 '나'만을 위하는 마귀의 마음을 품다 마귀의 최종 목표 사방의 높이로 빠질 것인가? 당신은 이미 정답을 알고 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참고문 기자

## 우리말 바꾸기 표준어 제대로 쓰기②

이번 호에서는 띄어쓰기, 맞춤법, 표준어에 어긋난 문장들을 바르게 고치는 연습을 하자. 정답 부분을 가려놓고 본인이 쓴 답과 맞추어 보도록 하자.

1. 그가언제올는지알수없습니다.
2. 생각건대그사람은재물을몽땅떨어먹고친구에게돈을빌어서산다.
3. 한달만에영어를배워가지고아는체하고있다.
4. 갑자기고향에가게되어서결혼식부조금은다른사람에게부탁했다.
5. 한글을띄워쓰기규정에맞게쓰이는아주드물다.
6. 무슨일을할땐뒤통이없도록해라.
7. 당신 좋을 대로 하십시오.
8. 집에서만몸이라도편하게쉬수있으면 좋겠다.
9. 떠난지재1년이못되었다.\*  
이승우기자

- (정답)
1. 그가 언제 올는지 알 수 없습니다.
  2. 생각건대 그 사람은 재물을 몽땅 떨어먹고 친구에게 돈을 빌어서 산다.
  3. 한 달 만에 영어를 배워가지고 아는 체하고 있다.
  4. 갑자기 고향에 가게 되어서 결혼식 부조금은 다른 사람에게 부탁했다.
  5. 한글을 띄워쓰기 규정에 맞게 쓰기는 아주 드물다.
  6. 무슨 일을 할 땐 뒤통이 없도록 해라.
  7. 당신 좋을 대로 하십시오.
  8. 집에서 만몸이라도 편하게 쉬 수 있으면 좋겠다.
  9. 떠난 지 재 1년이 못 되었다.\*  
이승우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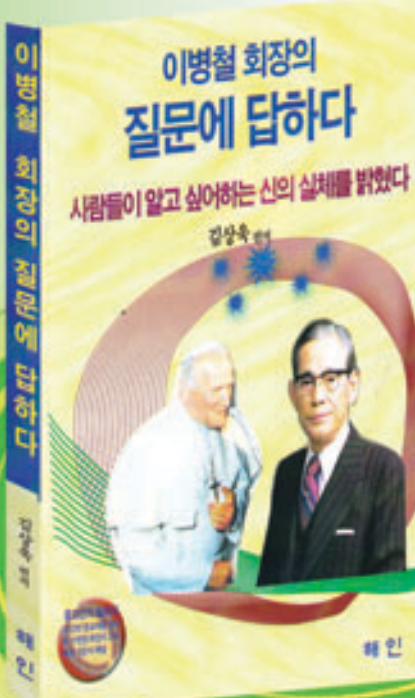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불문하고 사랑은 누구나 하나님입니다.

### 신의 실체를 알고 싶으십니까?

**이병철 회장의 질문에 대하여**

기독교, 천주교, 승리제단에서 답한 것을 일목요연하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신의 호흡을 느끼고 신의 생생한 모습과 신의 음성, 신의 목시를 당신은 느낄 수 있습니다. 인간 삶에 대한 본질적 물음에 대해 신의 혜안으로 풀어진 답변을 읽을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은 착한 심정이는 지옥에 갔을까요?  
그러면, 세종대왕은? 이순신 장군은?  
이에 대한 답이 이 책에 있습니다



**하나님 (신)**

● 하나님이 선하다면 재난과 전쟁, 무고한 사람들의 죽음을 왜 방치하는가?

**종말 인류의 미래**

● 지구에 종말이 올까?  
● 인간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부자와 천국**

●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과 같다고 했는데 부자는 악인인가?

**장생 천국한 삶**

● 사람은 왜 늙고 병들어 죽어야만 하는가?

시중 서점결찰 판매중

도서출판 해·인